# Ewha Medical School News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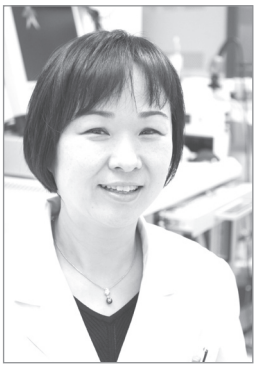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예 3:25)


발행인 : 정성민 편집인 : 문혜성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양천구 목5동 911-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33 호 〈 2012. 09 〉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 정성민 신임 의학전문대학원장 · 의과대학장 취임



이비인후과학교실 정성민 교수가 2012년 8월 1일자로 신임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의과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정성민 학장은 이화의대에서 음성학과 두경부외과학을 전공했으며,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 교무부장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2012년 8월 1일자 신임 교무부원장에는 해부학교실 한후재 교수가 취임하였다. 한후재 교수는 이화여대 입학관리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성민 의전원장은 "연구중심대학의 발판을 닦겠다"는 포부와 함께 "인류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거듭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12년 8월 1일자 신임 교무부원장에는 해부학교실 한후재 교수가, 신임 연구부원장에는 생화학교실 정성철 교수가 임명되었다.

### ◎ 2013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9월 28일(금) 2013학년도 수시모집 M.D.과정(의무석사과정) 최종합격자 46명(일반전형 43명, 특별전형 3명)을 발표하였다.

일반전형 합격자의 출신대학 분포는 이화여대를 비롯하여 국내외 최상위권 대학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출신 계열별로는 생물학, 기타공대 · 자연대, 인문학, 화학계열 등의 순서의 분포를 보였다. 특별전형에서는 외국대학출신 성적우수자 전형으로 3명이 선발되었다.

정성민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우수한 지원자가 매우 많아 모집 인원만 선발하기가 아쉬울 정도였다" 며 "아쉽게 탈락한 지원자들은 올해 정시모집에 도전하여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201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10월 9일(화) 부터 11일(목)까지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www.ewhamed.ac.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2012년 M4 OSCE-Ⅱ/CPX-Ⅲ,Ⅳ 시행

2012년 M4 OSCE-Ⅱ/CPX-Ⅲ가 8월21일(화)~23일(목) 3일간, CPX-Ⅳ가 8월 28일(화)~8월 29일(수) 2일간 의학관 B동 8층 (EMSC, PBL-Room)에서 시행되었다. OSCE는 임상 실행능력 평가의 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일련의 station을 돌며 문항을 수행하게 하는 시험이다. 이번 OSCE에는 전체 66명의 학생들이 6개의 조로 나뉘어 한 문항 당 5분, 총12개의 문항을 수행하였다.

반면 CPX는 모의로 환자 진료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임상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본교는 서울-경기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어 컨소시엄 산하의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SP)들이 시험에 투입되었으며, 11명 한 조로 무작위 배정된 학생들은 한 사례 당 16분씩 총 6개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

### ◎ 4학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 Self study room 개설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를 위한 Self study room을 개설하였다. Self study room은 OSCE 항목과 관련된 실습을 스스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각 시험일 별로 실습 조를 구성하여 시험 전 충분한 실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 등은 각 국가고시 시험일 별로 시험 전 의학교육실 어은경 교수님의 tutoring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Self study room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사용 전 예약해야 실습 지원이 가능하다.

### ◎ 이화해외의료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제3회 행복나눔인상 국제나눔 분야에서 복지부 장관상**
**-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 의료봉사로 한국인의 자긍심과 문화 전파 공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이 '제3회 행복나눔인 시상식'에서 '국제나눔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행복나눔인 시상식'은 우리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여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제3회 행복나눔인상 시상식에서 문영철 이화해외의료봉사단 간사(내과학교실 교수 · 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1989년 네팔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봉사활동의 무대를 넓히고 있다."며 "이를 통해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의료봉사는 물론 한국의 자긍심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선 공이 크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신상진 이화해외의료봉사단 위원장(정형외과학교실 교수)은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매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를 통해 이화의 봉사정신을 전파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료봉사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선진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생 및 교수 소식

### [학/생/소/식]

지난 8월 9일 자정, 한국 의대생 대표단이 세계의대생연합(IFMS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의 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 뭄바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의대생 대표단을 이끌었던 학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인 강유선 학생이었다. IFMSA는 1951년에 설립된 전세계 의대생의 대표로 이루어진 연합단체로,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104개국의 의대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WHO, UN, MSF(Medicins Sans Frontier, 국경 없는 의사회)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공식 NGO이다. 한국에서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학생 연합(이하 의대협)이 IFMSA에 한국 단위로 가입이 되어 있고, 본교의 강유선 학생은 의대협에서 부의장으로서 국제협력부에 관련된 일의 총책임을 맡고 있다.

IFMSA의 전체 총회는 매년 3월과 8월에 개최된다. 세계 각국에서 16명의 대표가 각각 참여하여, 병원 실습 교환 프로그램의 국가 간 계약을 맺고 의대생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며, 각 나라의 대표자들의 회의인 '의장회의(President Session)'에서 전 세계 의대생들이 IFMSA의 일원으로써 함께 가져야 하는 목표와 비전, 가치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올해 총회에서 한국은 두 가지 큰 성과를 얻었다. 첫 번째는 후보국으로 가입되어 있던 한국이 만장일치로 정회원 국가로 승격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은 후보국 지위에 머무르며 President Session과 총회(Plenary)에서 투표권은 얻지 못하고 발언권만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회원으로 승격함으로써 투표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25개의 국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의대생들의 다양한 기회의 문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총회는 내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교/수/소/식]

#### * 김용일 교수,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 발표

외과학교실 김용일 교수는 대한외과학회, 대한위암학회의 위임을 받아 국립암센터 류근원 박사와 연세의대 김형일 교수, 서울의대 공성호 교수 등과 함께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한외과학회 소식지 'The Surgeon'을 통해 발표된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은 총 8개 항목에 대하여 23개 권고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은 다학제적 접근 방법을 통해 각 유관학회의 전문가들이 학회로부터 추천 받아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했고 근거 중심 접근법을 통해 체계적인 고찰로 권고안을 도출했으며 권고의 등급과 근거의 수준을 참고문헌 및 근거표와 함께 명시했다는 것이 김용일 교수의 설명이다.

#### * 이레나 교수,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 유방암 전용 광음향 스캐닝 시스템으로 유방암 진단 간편화

방사선종양학교실 이레나 교수가 유방암 전용 광음향 스캐닝 시스템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유능한 여성 인력들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여성들의 우수 아이템을 개발하여 미래의 여성 CEO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관련 창업대회이다.

이레나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수준은 의학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이 무척 낮은 편"이라며 "이번 수상으로 유방암 전용 광음향 스캐닝 시스템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의료원 동정

### ◈ 이대목동병원, '실속 암 맞춤 건강진단 프로그램' 운영
###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암표지자 검사 포함

이대목동병원(원장:김광호)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건강을 돌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15만원대의 '실속 암 맞춤 기본 검진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여성과 남성의 건강검진을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해 운영하는데다 센터 내 외래 진료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 암환자 우선 진료 시스템 등 신속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어온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고객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1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암에 대한 기본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오는 9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적용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체지방 분석 등의 신체계측, 심전도, 흉부X-선 촬영 등의 심폐검사와 암표지자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기본검진으로 한다. 특히 암표지자 검사에는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기본적인 암 검진이 가능하다.

또한 '실속 암 맞춤 기본 검진' 항목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를 선택해 할 수 있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불필요한 검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검사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의 김정숙 센터장은"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종합건강검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선뜻 종합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시적으로 실속 암 맞춤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 이화의료원, 제2병원 건립 계기로 전문화 전략 가속화
### - 서현숙 의료원장, 이대목동병원 개원 19주년 기념식서 밝혀
### - 제2병원 미래성장성이 높은 질환, 중증질환 중심 특성화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여성암 및 여성 연계 질환 중심 특성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서현숙)이 10월 5일 이대목동병원 개원 19주년 기념식에서 1,000병상 이상의 대규모 첨단 국제 병원의 면모를 갖출 제2병원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전문화 전략에 기반을 둔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현숙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김광호 이대목동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원 기념식에서 서현숙 의료원장은 "제2병원 건립은 또 하나의 병원 건립이라는 단순한 규모 확장 개념이 아니라 전문화를 통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대전환으로, 재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숙 의료원장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제2병원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 고난도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여성암 분야를 비롯한 여성 연계 질환 중심으로 전문화할 계획이다. 서현숙 의료원장은 "제2병원 건립을 계기로 만들어질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발전 전략은 전문화, 특성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여성암 분야는 이화의료원의 강점 분야로 제2병원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화 육성할 것이며, 여성암 전문화를 통해 얻은 성공 체험과 그동안 축적해온 의료원 내부 역량을 총 결집해 제2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숙 의료원장은 제2병원과 새롭게 재탄생할 이대목동병원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산업화로 수입구조 다변화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해외환자를 위한 토털 서비스 운영 역량 확보 ▲노사 상생의 모범적인 노사문화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이대목동병원장은 개원 19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은 향후 중장기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질환 중심의 특성화 센터를 집중 육성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 제2병원의 든든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직원과 장기근속자 시상식도 열려 72병동 조윤왕 간호사 외 8명이 의료원장상인 친절상을 수상하는 등 총 29명의 모범직원과 72명의 장기근속자가 포상을 받았다.

##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기금, 글로벌인재육성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012년 7월~9월 ]

| 기금명 | 후원자 | 약정액 |
|---|---|---|
| 정화순장학금 | 정화순 | 30,000,000 |
| Hak He Rhee & Chong Soo Pyun Scholarship | Hak He Rhee Chong Soo Pyun | 18,390,610 |
| Heeyul Lee Cho Scholarship | Heeyul Lee Cho | 2,830,196 |
| Heung Sook Kim MD Scholarship | Heung Sook Kim | 2,830,196 |
| John D. Yun Scholarship | John D. Yun | 2,830,196 |
| Keun Hee Park Scoolarship | Keun Hee Park | 2,830,196 |
| 의대연구기금 | 북미주 의대동창회 | 11,320,782 |

## 알/립/니/다

### ✚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의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

# 이화의학 역사 전시공간 설치

왼쪽부터 : 정화순교수, 황연대 동문, 조종남 이대총동창회장, 정성민 의전원장, 박혜영 전임학장, 배순희 의대동창회장, 김광호 목동병원장, 백남선 여성암병원장, 이순남교수

동문들과 내외부 인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화의학 역사 전시 공간이 지난 7월 설치되었다. 전시 공간 오픈 기념식은 지난 7월 31일(화) 오후 3시에 의학관 A동 1층 로비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화 의학 역사 전시공간은 과거 이화의대의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이화 의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화 의대의 모태인 보구여관 125주년이 되는 해인 2012년을 맞이하여, 이화 의학의 지난 발자취를 정리하고 역사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의학관 A동 1층 복도, 김옥길홀 로비 한 쪽 벽면, 의학관 B동 7층 승강기 앞 공간에 이화의학 역사 전시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의학관 A동 1층 복도에는 총 6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전시물을 연속적으로 전시함으로써 1887년 이화의료원의 전신인 보구여관(保救女館) 설립에서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진한 이화 의학의 변화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의학관 B동 7층에 마련된 전시공간에는 이화 의학의 교육목표(사랑, 전문성, 봉사)를 나타낸 전시물과 이화의대 선배들의 과거를 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전시함으로써 이화 의학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문들의 기증물품(졸업사진, 수업자료, 성적표, 합격통지서 등)을 전시하여 이화 의학의 후학들에게 이화 의학교육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애와 전문성, 봉사정신을 겸비한 우수한 여성 의학자와 여의사 양성을 모토로 국내외 의학발전에 기여해 왔다. 1887년, 정동의 작은 한옥에서 시작한 이화의학은 현재까지 약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